

수산분야 현안 듣기 위해 수산가공업계와 소통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업계 간담회 개최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7일(수)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삼양 씨푸드(주) 등 20여 개 수출가공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부터 수산업계가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경남·제주·전남·경북 등 권역별 생산자단체와 수산유통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산가공업계 릴레이 간담회도 이어간다.

이 자리에서 송 차관은 “최근 일본 원전수 방류 이슈로 걱정과 염려가 크신 것으로 안다”라며, “우리나라 바닷물과 수산물은 단 한 차례도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는 만큼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를 비롯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수산가공업계와 소비자분들도 정부를 믿고 우리 수산물을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송 차관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수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업계 현안을 듣는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측과 의혹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에 기반한 소통과 정보제공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수출가공진흥과장	책임자	과 장	박승준 (044-200-5480)
		담당자	사무관	장용호 (044-200-5485)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최장원 (044-200-5940)
		담당자	사무관	김수정 (044-200-5803)